



서민 괴롭히는 조폭 뿌리 뽑는다

광주지검, 재개발지구 용역회사 가담 등 조사 문신 보여주며 공포감만 조성해도 강력 처벌

했다. 광주지검은 해당 사업지구에서 시공사 재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재개발조합측과 시공사측이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등이 가담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한때 '보스급 조폭'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자본력 등을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사기성 여부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번 내사결과 조폭이 연루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예전과 다

름없이 고강도 처벌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예외 없는 구속수사 원칙의 적용이다.

실례로 C과 행동대원인 A(38)씨의 경우 지난 3월 복구에 있는 한 노래홀에서 외국인 성매매를 허위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서 36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지난 4일 전격 구속했다.

광주지검의 이러한 조치는 조폭 자체를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과도한 문신 등으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위협

을 가하는 경우도 엄단 대상에 포함된다. 수사 당국은 현재 광주에서는 중장로 일대를 중심으로 문신을 온몸에 새긴 10~20대들이 떼지어 몰려다니고 있으며, 상무지구에서는 30대 안팎 조폭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과거처럼 계파를 중심으로 한 조폭의 형태는 사실상 사라지고, 특성이익에 따라 뿔뚱해져 해산하는 형식의 이합집산(離合集散)형 조폭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의 행동반경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조폭 등 서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집단에 대해서는 엄중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검이 '서민 위협형'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 갑갑을 세웠다.

광주지검은 10일 "최근 계림동 등 광주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위압감과 공포감을 주는 남성들이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5월 26일자 7면)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 정비
광주시 북구청 건설과 하수팀 직원들이 10일 문흥동 한 이면도로에서 준설차를 이용해 하수관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고 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교폭력 피해자 3명중 2명... 난폭해지는 초등생

전반적 감소세에 초등생 비율만 늘어... 4학년 '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이들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3월 20일~4월 28일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매년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 재학생 441만명 가운데 94.9%인 419만명이 참여한 지난해 10월 이후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답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학생은 3만7000명(0.9%)이었다. 지난해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피해 학생 수는 2000명 적고, 비율은 같다.

교육부는 20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봤다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생이 2.1%(2만6400명), 중학생 0.5%(6300명), 고등학생 0.3%(4500명)로 지난해와 같았다.

다만, 피해를 봤다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줄면서 피해 학생 가

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8%에서 71%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조사 대상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피해 응답률이 3.7%로 모든 학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학생 1천명당 피해 응답 건수는 언어폭력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3.1건)과 스토킹(2.3건), 신체 폭행(2.2건)이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 비율 역시 언어폭력(34.1%)과 집단따돌림(16.6%)이 가장 높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두 유형 다음으로 스토킹과 신체폭행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생은 언어폭력에 이어 집단따돌림과 사이버괴롭힘 비율이 비슷하게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는 '교실 안'(28.9%), '복도'(14.1%) 등 주로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유형은 '같은 학교 같은 반'(44.2%)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31.8%)이 다수였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해질 21:11
해짐 19:49 달짐 07:09

평통 더위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온뒤	24/32	보성	비온뒤	22/30
목포	비온뒤	23/30	순천	비온뒤	4/33
여수	비온뒤	24/31	영광	비온뒤	24/31
나주	비온뒤	24/31	진도	비온뒤	23/30
완도	비온뒤	24/30	전주	비온뒤	24/32
구례	비온뒤	23/32	군산	비온뒤	24/31
강진	비온뒤	23/31	남원	비온뒤	23/33
해남	비온뒤	24/31	홍산도	비온뒤	22/28
장성	비온뒤	23/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동~남 0.5~1.0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	남동~남 0.5~1.5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1.5~2.5	남~남서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8:54	03:41
	20:49	15:34
여수	04:20	10:14
	16:10	22:48

◇주간 날씨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	☀	☀	☁	☀	☀	☀
24/34	25/32	24/33	25/32	25/32	25/32	25/33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높음
- 피부질환 높음

멸종위기 '날개하늘나리' 지리산서 활짝

국내에서 자생하는 나리꽃 중 유일한 멸종위기종인 날개하늘나리가 여름을 맞아 지리산에서 꽃망울을 터뜨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모니터링을 통해 멸종위기 II급 식물인 날개하늘나리가 지난 4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서 개화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날개하늘나리는 강원도 오대산, 설악산, 태백산 등 강원도 이북지방에 주로 분포하며 개체가 극소수밖에 없어 보호가 시급한 식물이다. 꽃이 하늘을 향해 피고 꽃잎이 하늘나리보다 넓어 날개를

단 것처럼 보인다고 해 날개하늘나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구레=이진택기자 lit@kwangju.co.kr

광주 특성학교 현장실습 3명중 1명 전공 무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광주 특성학교·마이스터고 학생 3명 중 1명은 전공과는 상관없는 곳에 파견돼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2016 광주지역 파견형 현장실습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13개 학교에서 모두 1926명의 학생을 1059개 업체에 파견했다.

13개 학교 중 학교 업종 불일치율이 전체 평균 39%보다 높은 학교도 6개교나 됐다. 100% 전공 불일치를 보인 업종은 농업·영농 중사업·요식업 등이다. 제조 기타 업종도 평균보다 높은 41~

46%의 전공 불일치율을 보였으며 의료·무역·유통판매도 높은 전공 불일치율을 기록했다.

전공 일치율보다 불일치율이 높은 학교는 전체 42개교 중 19개 교로 간호과·건축디자인과·글로벌디자인과·디지털전자과·보건행정과·비서사무서비스과 등이다.

전공 불일치율 100%인 직업의 수는 가구 제조 및 수리업 등 66개이며, 경리사무원·총리사무원 등 23개 직업이 50% 이상 전공 불일치율을 보였다. /*이종행기자glee@kwangju.co.kr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만원 ~~65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땀방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치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